

부활 제 5 주일

기도서 295 면(A해)

제1독서: 사 도 6, 1-7
제2독서: I 베드 2, 4-9
복 음: 요 한 14, 1-12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 흥보국
인쇄: 판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감 론



나는 길입니다

서 석 구 신부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마 사도가 "주여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모릅니다"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가야할 길을 한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고 의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가 뚫려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게 되었고 조금 있으면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울림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만남이 자주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길이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바로 당신이 길이고 암흑속에 헤매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의 높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읍니다. 희망도 빛도 없는 캄캄한 암흑세계였읍니다. 고통과 슬픔 죽을 뿐이었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길이 되어 주셔서 죄로 막혔던 높은 담을 헐어버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찾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분은 우리를 당신 밝은 빛으로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은 그분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나의 손을 놓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손을 뿌리쳤읍니다. 손을 놓친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아이처럼 길 한복판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길을 찾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길을 잘못들어 높은 담속에 갇혀 후회와 원망으로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가야할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을 뿌리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백년을 걸어가는 나그네인 것을!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는 일방통행인 것을!

후회없는 길, 원망없는 길 주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갑시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오고가는 그 길을 밝혀주소서. (교창 주임신부)



필리핀 이야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필리핀의 총선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신문은 그 사실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 "필리핀의 가톨릭 방송이 무더기표가 난무하며 개표 부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의심보도와, 정치 영향력이 큰 가톨릭 지도자 신 추기경이 선거부정은 불행한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는 보도가 마음에 걸린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난날의 우리 역사를 다시 보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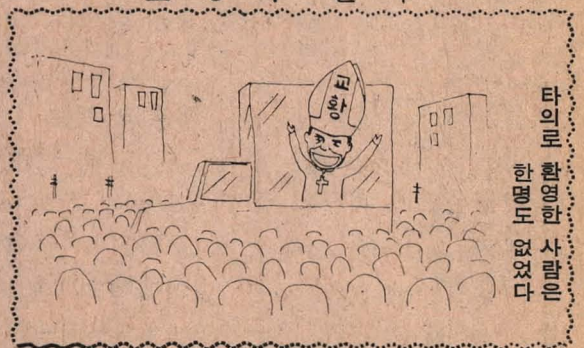
마르코스의 장기집권, 권력남용, 부패에 지친 필리핀 국민들이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혐오로 야당에게 많은 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당일에만도 91명이 테러로 목숨을 잃고, 마닐라의 한 선거구에서는 약 30명의 정치장패들이 몸통이를 휘두르면서 개표장에 난입하여 개표작업에 중사중이던 교사들을 몰아낸 후 투표용지 봉치들을 바꿔치기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거기다가 마르코스의 기만술 때문에 공식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재야 지도자의 우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불사조와 같았던 권모술수의 화신 마르코스의 18년 독재에 종말의 시작이 전개되는 것 같다"는 전망에 큰 관심과 희망을 건다.

그러나 저러나 마르코스는 국회를 바지 저고리로 만들 수 있는 날카로운 칼, 대통령 포고령을 거머쥐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부정과 불의에 대항해온 양심세력들과 예언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두 손 모아 빌고 싶은 것은, 「불행한 5월」이 필리핀을 거르고 지나가 주십사 하는 것이다.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비는 우리의 소망을 버리지 마소서.

숲 정 이 산 책



□교황님 말씀—시성식 강론 발췌

### 순교자의 영웅적 증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형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하던 여러분의  
 선조들은 1784년에 자기들중 한 사람을 복경으로 보  
 냈고 그는 거기서 영세하였습니다. 이 좋은 씨앗으로부터  
 한국에 첫 그리스도 공동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  
 은 전적으로 신도에 의해서만 세워졌다는 점으로 보아  
 교회 역사에서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신생교회는 아직 어리면서도 믿음에는 그토록 굳세  
 어 몹시 사나운 군란을 거들거들 견디었습니다. 그리하  
 여 한 세기도 채 못되어 1만명을 헤아리는 순교자를 자랑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가 그  
 처럼 훌륭히 꽃피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순교자들의 영  
 용적 증거의 열매입니다.

이 시성식을 통하여 한국의 순교복자들은 이제 천주교  
 회의 성인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나라의  
 참된 아들 딸들입니다. 그분들은 열풍으로나 언어로나  
 문화로나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아울러 그분들은 피로써  
 증거한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부모들이십니다. 열세  
 살만 초년 유 대철 베드로로부터 일흔들의 노인 정 의배  
 다르프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사제, 신도, 부자, 빈  
 자, 상민, 양반 할 것없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덜 알려진 처명자들의 후손으로서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어가셨습니다.

초기 처명자의 한분인 권 테레사의 최후 진술을 들어  
 보십시오. “천주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고, 모든 피조  
 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라고 그러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부모를 배반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더구나 배반해서는 안됩니다” 하였습니다.

처명자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것  
 은 그들의 죽음도 새 생명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당한 그들에게서  
 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들의 산 공동체로서의  
 교회안에 누룩이 된 것입니다. “처명자의 피는 그리스도  
 인의 씨앗”이라는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격언이 우리  
 눈앞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한국땅의 교회는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계 구원의  
 은혜에 대해 장엄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의 이 높은 값에 교회는 한국 순교자들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앙의 영속적 증거를 보려고 합니다.

이 증거로써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땅에서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구 원 의 빛

—사람으로 오셨다가  
 사람으로 떠나가신  
 교황님을 흠모하며—

#### 유 종 소(베드로)

5월의 싱그러운 대지 위에  
 정의와 진리를 심어놓고  
 메마른 심금을 울려주셨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5월의 부드러운 훈풍처럼  
 봉사와 희생과 자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시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5월의 푸른 광풍처럼  
 관용과 만남과 화해로써  
 상흔의 가슴을 씻어주셨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5월의 순결한 백합처럼  
 신앙의 신비속에 부활이 있듯이  
 소외당한 이들을 위로하셨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5월의 찬란한 태양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위에 빛을 밝혀주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파티마 본당)

### 마니피캣 합창단원 모집

대 상 : 전주교구 내 각 대학 재학생 신자 및 성  
 가에 관철있는 자

연습일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30분

심사일 : 1984년 5월 23일 오후 5시30분

※(곡명—자유곡)

장 소 : 가톨릭센터 내 학생회관

형 강 : 누구나 연습일에 참가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전주 교구청 내 교육국으로 문  
 의 바람

### 미성별성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별성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벨트·지갑·기타  
 피혁소품

☎ 교황 72-0551-5

72-0561-5

김혜겸(클라라)

### 태평양 팻손

라 보 라

\*스타킹 \*파운데이션

\*란제리 \*아동 잠옷

코아백화점 1층 32호

서희숙(모니카)

### 안 내 말 씀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자 공소 및 가정에 성모상을 모  
 시교 은혜를 구합니다.

• 감당 및 정원용 : 높이 100cm 가격—6만원

• 실내 가정용 : 높이 75cm 가격—3만원 재료—F.R.P

<성상, 성화 부조, 기타 조각 일체>

신세기 조각 연구소

☎ 4-5633, 3-2107

김시문

### □ 동산촌(東山村) 본당 신설

—전주교구 41번째 본당  
초대 주임에 권 이복 신부

덕진 본당(주임-김 봉희 신부) 관할의 동산촌(東山村)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됨으로써 전주교구의 본당 수는 41개가 되었다.

완주군 조촌면에 위치한 동산촌 공소는 이미 4년 전부터 덕진 본당 주임신부(당시 서석기 신부)의 특별한 사목적 배려로 본당 신설 준비를 해 왔으며 덕진 본당 보좌신부들의 활동으로 그 기반을 다져왔다. 신자들의 열성도 대단하여 동성회·자모회·애령회·2개 브레시디움·주일학교 교사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의 템포를 늦추지 않았으며 금년 3월에는 사도회(회장 한 상갑 바오로)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교구의 막내 본당인 동산촌 본당은 5백여명의 신자와 비좁고 낡은 공소 건물, 전세로 얻은 사제관과 성당을 지을 터 500여명으로 첫 출범을 하게 된다. 이는 교구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서, 앞으로 주목되는 바 또한 크다. 특별히 군중사목을 마치고 본당사목을 시작하는 권 이복 신부와 동산 본당 형제자매들에게 많은 기도도와 큰 박수를 보내며 깊은 관심을 갖자. ※ 동산촌 본당 전화: 74-4614

### □ 200주년 기도문 수정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에서는 시성식이 끝난 후에도 200주년 기도문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단, 기도문 마지막 부분 “또한 우리 북자들로 하여금 시성의 영광을 입어 만방에 빛나게 하시며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가 온누리에 임하게 하소서”란 구절은 삭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으로 끝나도록 하고 있다.

### □ 제 5차 레지오 마리에 연수회

- 일 시-5월 27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 장 소-가톨릭 센터
- 대 상-84년 1차 강사요원 교육이수자 전원과 LM간부 및 간부후보자
- 내 용-출애굽기, LM정신
- 강 사-김 정원 신부님, 김 보나 수녀님, Co단장 참가비-2천원
- 지참물-성서 40주간 제1권, 신구약성서, 교본, 필기도구, 공동체 성가집
- 유의사항-출애굽기를 한번 이상 읽고 오시기 바람

### □ 전주교구 7위 성인 ㉔

### 성 손 선지 베드로(1820~1866)

일명 ‘승운’으로도 불리는 손 선지는 충청도 임천의 피인돌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어려서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 성격이 온순하고 착해 16세 때 정(샤스탕) 신부에 의해 회장으로 임명되어 순교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1866년 병인 박해 때 손 선지는 전주지방의 교우촌인 대성동 신리에 살며 자신의 집을 공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해 12월 5일 전라 감사의 체포령으로 대성동과 성지동을 급습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정 문호, 한 원서 등과 함께 전주 감영 후면옥에 갇히게 되었다. 신문중 회장의 신분인 탄로나 공소를 거쳐간 서양 신부와 교회서적의 출처를 대라는 관장에게 매우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손 선지는 회장답게 혹형과 고문을 이겨내며 함께 체포된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다. 드디어 12월 13일 예수, 마리아를 부르면서 대성동과 성지동에서 체포된 5명의 교우와 함께 전주 서문밖 숲정사에서 참수되어 47세로 순교했다.

### 요심이(563) 김병오

교황님이 사제는 반정부행위자를 단속하는 안된다고 강론했다고 방송했는데...

교황님이 그렇게 말한일이 없다고 주한 교황대사관에서 부인한 사실은 왜 방송하지않습니까?

교황님이 광주시민에게 가슴이 아프겠다고 말한 사실은 왜 방송하지않습니까?

그렇게편파적으로 방송하니까 학생들이 한국언론이 어찌구 저찌구하지않습니까?



편리하고  
안락한 부역

### 백조표 씹크 전북대리점

중앙성당←대리점→박승창  
산부인과

☎ 3631-2

대표:이 영 희(테레사)

### 성심연와공업사

염색 벽돌·적벽돌(제조 판매)  
공장전화: 황산 174번  
본사: 이리시 창인동  
전주사무실: ☎ 2-0385  
이리시 창인동 1가 259  
☎ 2994·7979  
대표: 차계철(베드로)

각종 수입약품 완비  
(간장, 빈혈, 영양제 등)  
친절 상담 봉사  
염가 판매 조제

군산 태광 약국  
구시장 오거리 ㉔ 1800  
이 루도비코(원식)  
최 테레사(순정)

### 마 기 환 안 과

원장: 전문의 마 기 환  
장소: 팔달로변 불새대방  
2층  
전화 75-2203  
한 남회(비리시타)

### 진선미 꽃 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덕배)



☆ 오늘은 103위 순교자 시성 감사미사 봉헌일입니다

1. 제1지구 어린이 대잔치 및 성가 합창대회: 20일 오전 9시30분, 장소-성심학교 강당  
준비물-도시락·신발주머니
2. 5월 피미시움 회의: 20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각 우리아 및 직속 Pr. 간부 전원
3. 사목방문: 23일-중앙, 24일-상관·서학동
4. 제5기 센터 예비자반 개강: 25일 오후 7시30분, 장소-센타 강당
5. 중·고생 지도자 연수회: 26일 오후 4시~27일 센타, 주제-"하느님과 화평"(유기물2회 입을 것)참가비-6천원
6. 성령쇄신 은혜의 밤: 5월 30일 수 오후 7:30, 주제-증거의 생활, 장소-파티마 성당(효자동)
7.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피점: 6월 6일 오전 9시, 장소-노충성당, 대상-전북지구 각 형제회 형제 자매  
지참물-수도복·기도서·성가집·묵주, 회비-1천5백원(점심 제공)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전화 ⑩1711~3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김인협

- ☆ 환영합니다: 나춘성(스테파노) 보좌신부님
1. 신부님 환영식: 금일 공식미사 중
  2. 성모월경 기도: 매일 저녁미사 후
  3. 울드레아: 27일 9시 미사후 성당 접결, 장소-구이
  4. 견진교리 신청: 6월 3일까지 사무실 제출  
교리시간-6월 5·6·7·8·9일(5일간) 저녁미사 후,  
전지일-6월 10일(성신강림 대축일)
  5. 성모회: 공식미사 후
  6. 방지거 3회: 27일 공식미사 후
  7. 각 신심단체 6월 계획표: 27일까지 제출
  8. 벽돌봉헌: 18,238장 봉헌
  9. 부활반 영세자 첫교리: 26일 저녁미사 후
  10. 성모의 밤: 31일 저녁 8시
- 지난주 봉헌금: 1,009,995원 교무금: 418,500원  
특별헌금: 경원동 익명 10,000원, 이마리 요셉 5,000원, 영세감사 장인옥(세시리아) 12,000원

(노충동)

주임 신부 김용태  
신부 ⑩0969 보좌 신부 이성우  
사 ⑩7032 사도 회장 이홍재

1. 축! 103위 시성 경축미사: 모든 가정에서는 오늘의 중식을 준비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시다
  2. 보좌신부님 인사이드: 떠나시는 나춘성(스테파노) 신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이성우(마리아) 신부님 환영, 수고하시겠습니다
  3. 성전 신축헌금 신입서 봉헌식: 간부님들은 오늘 봉헌하시고, 남노충동·중노1가·중노2가·인후APT와 유아APT 전체, 위 지역의 신자들은 제2차 봉헌식(다음주)에 봉헌하세요, 그외 지역은 제3차 봉헌일(31일)에 봉헌하게 됩니다
  4. 사제양성후원 저금통: 속히 봉헌합시다
  5. 혈제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로 연기합니다
  6. 5개공소 회장단 회의: 22일 오후 6시, 다리리 공소
  7. 성모의 밤: 31일 오후 7시30분, 단체별 가족별 봉헌
- 지난주 봉헌금: 399,860원 아파트-111,900원  
교무금: 167,500원 아파트-142,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요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동산촌 본당 승격(덕진에서 분리)
  2. 보좌신부님 이취임(17일 인수인계)  
정양현 신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요안 신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성모 김대건 신부' 영화상영: 오늘밤 8시30분 본당
  4. 예비자교리 개강: 23일 밤 8시, 유치원에서  
반편성 새로 합니다, 많은 인도 바랍니다
  5. 오늘의 모임: 반석회-공식미사 후
  6. 금주 본당 청소: 진복회·성신부녀회-26일 오후 3시
  7. 다음주 모임 예고: 진복회
  8. 주일학교 미사 없음: 성가경연대회 관계로
- 지난주 봉헌금: 483,930원

(복자)

주임 신부 권영균  
전화 ⑩5238번 사도 회장 김성원

1. 사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2. LM 옥외행사: 27일 왕능산에서 10시30분 미사(공식미사) 어린이미사 없음, 본당미사-5:30·9시·저녁 7:30분
3. 성모의 밤: 26일 저녁미사 후, 꽃다발 및 화분과 초

4. 주일학교 어린이)성가 합창대회: 오늘 오전 9:30분  
성심학교 강당(도시락과 신발주머니 지참)
  5. 성모의 밤 성가연습: 23·24·25·26일 오후 2~3시
  6. 금주청소: 21일-어머니미사 후 (사탕하오신 어머니 Pr, 26일 오전 10시-순결하신 어머니Pr)
  7. 사제관 전화신설: 72-0592 사무실 수녀원: 2-5238
  8.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정동민 ②정윤주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천 건 ②조성호
- 지난주 봉헌금: 138,530원 교무금: 448,150원

(서학동)

신부 ⑩8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⑩2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사제양성후원: 은희천·김낙균·강기호·김배근·박장춘(각 2주씩), 김정수·김행자·유순복·정만성·한형수·함옥식·최봉순·김상철·김양자·성실의모후·김정석·이갑례(각 1주씩) 감사합니다
  3. 돼지저금통 속히 내주시기 바람
  4. 사목방문: 6번(22~23일), 5번(25~26일)
  5. 교구 사목방문: 24일 사도회임원 참석 요망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한상철 ②김병희
- 지난주 봉헌금: 340,300원 교무금: 287,500원

(숲정이)

전화 ⑩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⑩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구역모임: 구역모임 강화(모임일정 접수 바람)
  3. 성모의 밤: 26일 8:30분 성모상 앞  
(각 신심단체별 기도·화분·성가 준비)
  4. 예비자교리: 예비자모집, <시간> 화-오전 10시, 수-오후 8시·목-오후 8시30분·주일-공식미사 후
- ※ 금천 안세상 가 애병회 회사-30,000원
5. 금주전례: 해설-강원모, 독서-기도-노해두·고영숙  
차주전례: 해설-강원모, 독서-기도-장 삼·정종자
- 지난주 봉헌금: 185,640원 교무금: 382,500원

(전동)

신부 ⑩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사무 ⑩3222 보좌 신부 정양현  
수녀 ⑩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정양현 신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성화회: 공식미사 후 3. 피미시움: 오늘 오후 2시
  4. 클라라 혈제회: 다음주 오후 1시30분
  5. 예비자 교리안내: 수·목(일반) 저녁미사 후-보좌신부, 토(학생) 오후 4시30분-임마리로서 수녀, 일(일반) 공식미사 후-김세시리아 수녀
  6. 감사: 흥발주 부인(김비리사) 사망시 협조하신 분
  7. 주일학교 성가 합창대회: 오늘 성심학교 강당에서
  8.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원 ②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안득수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김희진 ②최종만
- 지난주 봉헌금: 823,320원 교무금: 216,500원  
성소주일금: 234,380원

(효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야외미사: 27일 오전 10시30분(세백·저녁미사 있음)
  2. 성지순례: 28일 천진암(5,000원)
  3. 성모의 밤: 29일 밤 8시
  4. 감사: 돌성수대-이창욱·노태려사 부부
  5. 축하: 셋빛Pr 탄생: (단장-송윤자)
  6. 금주 평일미사(월~토) 없음
- 지난주 봉헌금: 278,520원 교무금: 338,000원